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노동개악
총파업특별호

발행인 : 김정태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노조파괴법 저지! 전태일3법 쟁취! 총파업! 총력투쟁!

문재인 정부의 역대급 노동개악!

①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사업장 내에서 쟁의하면서 조합원 집회, 선전전, 교육이라도 하면 불법이 됩니다. 민주노조의 활동을 제약하고 아예 손발을 묶어버립니다.

② 상급단체 간부 출입 금지!

상급단체 간부 출입과 노조활동 모두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금속노조 위원장, 지부장, 상집 간부들이 지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산별노조를 완전히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립니다.

③ 단협 유효기간 2년 → 3년으로 연장!

단협 유효기간을 3년으로 늘리면 교섭도 3년마다 열립니다. 우리 권리인 단체협약을 개정할 수 있는 기회가 3년에 1번으로 줄어듭니다. 지회장 임기 동안 단협 개정을 못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강행모드!

노동법을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는 12/3(목) 예정이고 정기국회는 12/9(수) 종료됩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되지 않더라도 단독 처리해서라도 강행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말~12월초에 국회를 상대로 강력한 투쟁이 필요합니다.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간다!

금속노조는 11/25(수) 전체 조합원 주야2시간 이상 파업에 돌입합니다. 노동자들의 강력한 경고의 뜻을 국회에 보여줍니다. 12/3(목) 환경노동위원회 회의가 열릴 때는 전체 확대간부들이 서울에 집결해서 노동개악을 저지합니다. 이번 노동개악은 투쟁하는 민주노조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약화가 가장 핵심적인 목표입니다. 물러섬 없는 투쟁으로 노동개악 반드시 저지합니다!

[금속노조 총파업 총력투쟁 투쟁지침]

- ▲ 11/25(수) 금속노조 전 조합원 경고 파업 : 주야 2시간 이상 파업 돌입
(총회, 교육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파업투쟁에 복무)
- ▲ 12/02(수) 금속노조 전국 확대간부 상경투쟁 : 전체 확대간부 서울 집결
- ▲ 11/24(화) ~ 12/09(수) 국회 앞 농성 : 전체 지부별 순환해서 결함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 총력투쟁 조직을 위한 대표자 결의문]

노동법개악 저지!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승리합시다!

50년 전, 전태일 열사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외침이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노동현실입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같은 독소조항이 민주노조의 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노조법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아예 민주노조의 손발을 묶어버리는 노동법 개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산별노조 간부의 출입을 금지하고, 사업장 안에서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이번 노동법 개악은 ‘노조과괴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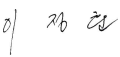
우리는 노동법 개악을 막기 위해 총파업, 총력투쟁을 조직할 것을 결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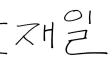
하나! 노동법 개악안 국회 상정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투쟁방침에 따라 총파업, 총력투쟁에 적극 복무한다!

하나! 노동법 개악을 저지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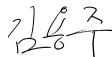
2020년 11월 1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장 김정태 

유성기업영동지회장 이정훈 

코스모링크지회장 윤재일 

한온시스템대전사내하청지회장 전진우 

대한이연지회장 김용주 

콘티넨탈지회장 조남덕 

대양판지지회장 김 훈 

한국JCC지회장 경미호 

이래오토모티브진천지회장 윤경수 

일진다이아몬드지회장 홍재준 

현대성우메탈지회장 김희수 

현대모비스충주지회장 김민우 

한온시스템대전지회장 조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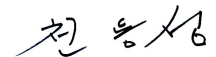
한국로버트보쉬지회장 박광수 

한국타이어지회장 김두익 

보쉬전장지회장 이화운 

코스모축매지회장 조성윤 

현대모비스충청부품지회장 윤기선 

현대오토넷사내하청지회장 천용성 

다우케미칼실리콘지회장 김기수 

코스파음성지회장 조현근 

한국KDK분회장 이재경 

APTIV지회장 전일영 